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황수정**

- <차례>
1. 머리말
 2. 애잔한 삶의 흔적
 3. 신화적 상상력의 힘
 4. 사계절 풍경의 여유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는 한시를 통해 ‘섬진강’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재구하고, 그 의미와 풍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찰하여, 독창적인 지역 문화와 서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구현하고 그 미적 소재를 밝힌다면, 과거와 현대인들 간의 종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다. 지식계층의 문화구현 양상이었던 한시를 통해 섬진강의 면면들을 살피고, 그 풍정을 읽어내고자 한다. 즉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모습에서 지역민의 삶을 볼 수 있다면 옛 선인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금에 개성적인 문화의 창출을 이끌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예술은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자이다.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말아야 할 역할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하고 계승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이다.¹⁾ 이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시대를 대변하며 인간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한시라는 문학의 틀 속에서 지역의 특정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특수성을 유추하여 지역 문화의 독창성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인간은 물 그 자체를 좋아한다. 뱃놀이, 답교, 탁족, 유두 등 전통 민속에서 현대의 각종 첨단 수상 레저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강은 다양한 놀이의 무대가 된다. 또한 물에 몸을 적시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온한 휴식을 얻을 수 있다. 물과 자연스럽게 사귀는 ‘친수’의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것이다.²⁾ 따라서 산수자연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지리산과 연관된 풍정을 읊은 옛 선인들은 많이 있었다. 특히 睡隱 姜沆(1567~1618)은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놓치지 않고 노래한 바 있다. <水月亭三十詠>³⁾이라는 제목으로 방장산, 악양, 죽림, 梅邊 등과 어울린 섬진강의 독창적인 미감을 그려냈다. 이처럼 산수자연에 대한 지금까지의 한문학연구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⁴⁾ 그중에서도 지리산과 연계된 한문학연구는 많은 성과가

* 이 논문은 2008년 11월 14일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기획주제: 한국어문학의 지역성 탐색)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조선대학교

1) 이선영 옮김, 『문화연구』,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2001, 456~461쪽.
 2) 김찬호, 『문화의 발견』, 문학과지성사, 2007, 289쪽.
 3) 姜沆, <水月亭三十詠>(大洞風月, 岳陽烟霞, 競秀千岩, 爭流萬壑, 分地春花, 方丈夏雲, 白雲秋月, 蓴岩冬雪, 東嶺朝暾), 西山落照 등), 『睡隱集』, 전라남도, 1989. 수월정은 광양시 매화마을인 다압면 도사리 섬진강변에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한국한문학회에서 ‘국토산하와 한문학(1995)’, ‘한문학과 생태·사상

있었다.⁵⁾ 그러나 강과 직접 연계된 한문학연구는 소략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 이로써 본 연구는 강과 연관된 한시에 대한 연구로 초석을 이룬다는 데 의미가 있겠다. 특히 섬진강⁷⁾의 빼어난 아름다움과 독특한 미감을 구축

(2004)이라는 기획주제 아래 연구 발표한 바 있어 많은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한문학 연구의 문화론적 전망(2006)’이라는 주제로 연구된 이종묵의 『山水와 生態와 文學』(『한국한문학회』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189~218쪽)을 주목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서는 한국한시학회에서 ‘한국한시와 지리산(1999)’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올린 바가 있다. 김혜숙의 『지리산의 한시적 반향』, 박수천의 『지리산의 사찰 제영 한시』, 김남기의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 최석기의 『浮査 成汝信의 지리산유람과 선취경향』(『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5~137쪽) 등이다.

6)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철범의 『낙동강 하구와 서경 한시』(『한국한문학연구』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47~66쪽)가 있다.

7) 섬진강에 대한 제반 기록은 하동군청, 구례군청,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세종지리지 전라도편, 고전번역원)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潺水津은 구례에 있는데, 그 수원이 둘이니, 그 하나는 진안 中臺山의 물이 서남쪽으로 흘러 임실·순창을 지나 돌아서 동쪽으로 흘러 남원 남쪽 경계에 이르러 鷓子津이 되며, 그 하나는 지리산 서북쪽 여러 골짜기의 물이 남원을 지나 순자진으로 들어가서, 그 하류가 鴨綠津이 되며, 또 보성 亭子川의 물이 북성 옛 縣을 지나 북쪽으로 흘러서 洛水津이 되고, 동북쪽으로 흘러 옛 谷城을 지나 압록진으로 들어가서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 구례현 남쪽과 순천 북쪽 경계에 이르러 잔수진이 되고, 지리산 남쪽 기슭을 지나서 경상도 晉州의 옛 任內 花開縣 서쪽에 이르러 龍王淵이 되는데, 조수가 이르며, 동남쪽으로 흘러 광양현의 남쪽을 지나 蟾津이 되어 바다로 들어간다.(潺水津在求禮 其源有二 其一鎮安 中臺山之水 西南流過 任實淳昌 轉而東流至 南原南境爲鷓子津 其一智異山 西北諸壑之水 過南原入于鷓子津 其下爲鴨綠津 又寶城亭子川水 經福城古縣 北流爲洛水津 東北流過古 谷城入于鴨綠津 合而東流至 求禮縣南 順天北境 是爲潺水津 過智異山 南麓至慶尙道晉州 古任內 花開縣西 爲龍王淵 潮水至焉 東南流過 光陽縣之南 爲蟾津入于海.)

또한 섬진강의 내력에 대해 읊은 유당 윤종균의 〈섬진강〉이란 시도 있다. 그 原註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섬진강] 근원이 둘이다. 하나는 진안의 마이산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장흥의 웅치에서 시작하여 곡성의 압록에서 만나서 동류하다가 잔수역이 되고, 또 동류하며 구례의 남쪽에서 문강이 되고 또 동류하여 한수천이 되며 또 동류하여 광양의 북쪽 섬진진을 지나고, 또 동류하여 하동의 두치강이 된다. 두치는 우리나라 방언에 섬을 두추라고 한다. 또 두축이라 부른다. 두치강이라 하는 것은 곧 두추강이 변한 소리다(其源有二 一自鎮安馬耳山發 一自長興熊峙發 合於谷城鴨綠江 東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섬진강을 한번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정한 미감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섬진강을 한시로써 고찰하여 그 미감과 서정,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외지인이 느끼는 유람적 성격이 아니라 현지인으로서 직접 삶과 연관되어 피부로 느끼는 섬진강의 면모와 풍정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례에 거주하였던 시인으로 섬진강을 소재로 하거나, 주제로 한 시, 그리고 섬진강 주변의 풍광을 읊은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⁸⁾ 이러한 시를 통해 섬진강의 옛 모습을 재구하고, 당시의 서정과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섬진강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선조의 멋과 풍류를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섬진강’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시정은 미래 후손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어 면면히 이어질 것이다.

2. 애잔한 삶의 흔적

섬진강에는 옛날에 한 처녀가 나루터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두꺼비를

流爲潺水驛 又東流求禮 南爲文江 又東流爲漢水川 又東流經光陽北蟾津鎮 又東流爲河東斗峙江 斗峙東國方言蟾 謂之蚪鼈 又云蚪龜 所謂斗峙江 卽蚪鼈江之轉音也.) 황수정, 『유당 윤종균의 삶과 시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362쪽 참조.

8) 구한말 이후 구례에 거주하며 활동하였던 시인인 梅泉 黃玟(1855~1910)을 비롯하여 西堂 尹鍾均(1861~1941), 小川 王師贊(1846~1912), 石田 黃瑗(1870~1944), 芝村 權鳳洙(1872~1940) 등이 쓴 섬진강 관련 시(총 35여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16세기 호남에서의 한시 융성 이후에 중앙 및 구례에서 詩作활동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시와 삶에 대한 연구로는 황수정의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와 『천사 왕석보 시 연구』(『한문교육연구』 제30호, 한문교육학회, 2008, 309~336쪽), 『유당 윤종균의 삶과 시 연구』(『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학회, 2008, 345~368쪽) 등이 있다. 그리고 김정환의 『매천시파연구』(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를 참조할 수 있다.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후에 그 처녀가 물에 빠져 곤경에 처하자 두꺼비가 처녀를 구한 후 지쳐 그 언덕 밑에서 숨졌다고 한다. 그 뒤 이 두꺼비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리는 뜻에서 이곳을 蟾津이라 하였다⁹⁾는 것이다. 이처럼 섬진강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선조들의 역사가 담겨있다. 지난 역사와 함께 이어온 섬진강의 내력과 함께 그 멋을 느껴보고자 한다.

옛 구례 사람들에게 섬진강은 어떠한 모습이었을 지에 의문점을 두고, 그 속에 있는 풍물들과의 어울림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이로써 섬진강과 그 주변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강의 친연성은 물론이려니와 삶의 단면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섬진강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진실과 일상사의 사실적 만남, 그리고 향토성 짙은 풍물을 기대해 본다. 이는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은 섬진강의 생태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시이다.

文江七月銀魚肥	문강 칠월에 은어가 살찌니
我獨臨水思依依	나 홀로 물에 임하니 생각이 아련하네.
鳳城當日進貢急	봉성에서 당일예 공을 받치길 급하게 했으니
盈尺銀魚健欲飛	한 자되는 은어가 건장하여 날고자 하네.

鳳城何日進貢廢	봉성 어느 날에 공 받치길 폐했는가?
江水依舊銀魚稀	강물은 옛날과 같은데 은어는 드물어졌네.
鳳城雖遠亦王畿	봉성이 비록 멀지만 또한 왕의 기내이니
微物尙如此嗟爾	미물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개탄스럽네.

9) 『전라남도지』 제18권, 337~338쪽 참조.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인 섬진강은 원래는 시수강·사천·두치강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고려 우왕 11년(1385)에 왜구가 섬진강 구에 침입했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울부짖어 왜구들이 놀라 물러났다는 전설도 있다.

尹鍾均, 〈文江銀魚〉(『酉堂詩集』 卷二)

이 시는 윤종균(1861~1941)의 작품으로 섬진강의 건강한 생명력과 애환을 그리고 있다. 그의 호는 酉堂이고, 순천 서면 사람이다. 매천 황현과 교유하면서 구례에 살게 된 인물이다. 유당은 섬진강의 은어에 대하여 부기하기를, “문강의 은어는 은고리를 돌렸다가하여 ‘銀鉤魚’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進貢을 하였는데 민폐가 되었다. 진공이 없어진 이후에 은어가 조금 남아있게 되었다.”¹⁰⁾라고 하였다. 섬진강에서 은어가 진상되었을 때의 폐해를 그리고자 한 것이다. 섬진강의 구례 남쪽에 해당하는 문강에서 잡히는 은어가 진상품으로 올랐던 것을 알 수 있는 시이다. 이를 통해 당시 구례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층민의 힘겨운 삶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귀하고 좋은 품목들은 모두 힘 있는 자의 것으로 바쳐지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뒤따라야만 했던 힘겨운 시절의 이야기이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지만, 진공으로 인하여 맑은 물속에 살고 있어야 할 자연 생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시에선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인간의 몫으로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우리 선인들의 산수관을 보면, 유교적 발상에 의한 심신 수양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論語』에서 제시한 “知者樂水 仁者樂山 仁者樂水 智者樂水”에 근거한 바 일 것이다.¹¹⁾ 산수는 예나 지금이나 문학 창작의 모티브가 되고, 그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자연의 혜택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한다. 문학으로 옛 문화를 구현할 수 있고, 이를 다시 현대화하여 적용해야 할 방안이

10) 銀魚口繞銀環 亦曰銀鉤魚 昔爲進貢爲民弊 自進貢廢銀魚 僅有存者. (윤종균, 『酉堂集』 卷二)

11) 이종목, 山水와 生態와 文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193~194쪽 참조.

필요하다. 이 시에서는 섬진강 내 자연 생태의 청정한 생명력을 관찰하고 제시한 것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인간의 포획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이끌었다. 이는 고향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진정성을 담은 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섬진강변의 산물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향토성을 엿볼 수 있다.

沿江柑樹一蒼蒼	강가에 나무들이 한결같이 푸르니
上枝下枝蟬聲涼	윗가지 아래가지 매미소리가 시원하네.
老圃耕田納午暑	늙은 농사꾼이 밭을 갈며 낮 더위를 피하니
軟沙如粉弄晴光	부드러운 모래는 분과 같아 맑은 빛을 희롱하네.
疏通溝塍整復斜	도랑 두둑이 소통하여 반듯하고 또 비겼으며
京院種子古來嘉	경원의 종자가 고래로 아름답네.
沙村百口菜農重	사촌의 일백 가구 채소 농사 중하니
立苗疏濶勸培壅	묘를 세우기를 드물게 하며 재배를 권하네.
鋤之灌之適雨陽	호미질하고 물대기를 비 오고 갠 날에 맞게 하니
外莖疊白中芽黃	바깥 줄기는 겹쳐 희고 속 싹은 노랑네.
秋深幅大如瓊	가을이 깊으면 포기마다 크기가 동이와 같고
始向江壚酒一中	비로소 강 주막으로 향하면 술이 언제나 있네.
莠待西風露化霜	서풍에 이슬이 서리로 변할 때를 기다려
萬畦簇簇騰清香	일만 두렁이 포기포기 맑은 향기 오르네.
椒縷薑片鱖鹽汁	후춧가루 생강조각 조기절인 진액을 버무려
十劃雪莖瓮裡立	열 가닥 하얀 줄기가 동이 속에 서있네.
冬菹初熟盤供美	겨울 김치가 처음 익으며 쟁반에 아름다운 것이
快如嚼梨水生髓	시원하기가 배를 씹은 것 같아 얼음이 꿀수에 생기네.

윤종균, <潺水白菜> (『酉堂集』 卷二)

이 시는 섬진강변 진수지역의 배추를 노래한 것이다. 배추농사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감각적인 접근이 뛰어나다. 이에 대한 原註를 보면, “진수는 구례군에서 남쪽으로 10리 옛 역정에 있다. 녹나무 5, 6그루 그늘이 덮었다. 마을 가운데서 물이 돌아 땅이 기름지다. 그래서 배추에 알맞다.

그 폭이 큰 것은 둘레가 18, 9치나 되고 줄기가 매우 희고 실이 없다. 싹이 굵박하고 주름이 예쁘다. 누런 김치가 겨울이 되면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매우 시원하다. 황성의 훈련원 배추가 나라에서 이름난 것이나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¹²⁾라고 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고향 산물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읽을 수 있다.

먼저 1~4구를 보면, 강변의 모습을 계절적인 감각과 찰나적 순간으로 포착하고 있다. 이로써 섬진강변의 특징을 그리고 있다. 고운 모래로 유명한 섬진강의 흰 모래를 ‘軟沙如粉弄晴光’이라고 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여름날의 매미소리와 어우러진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5~8구는 배추밭의 외형적인 모습과 그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심정을 대비시키고 있다. 배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조심스런 마음을 ‘立苗疏濶勸培壅’이라고 하여 섬세한 동작으로 가시화하였다. 9~12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농사짓는 모습과 배추가 자라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배추의 모습을 근거리에서 포착하여 초점을 모은 후, 다시 배추밭의 전경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이로써 농부가 누릴 수 있는 수확의 기쁨을 ‘始向江壚酒一中’이라고 소박하면서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13~16구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수확한 배추로 김장담그는 모습까지 그리고 있다. 김장에 들어가는 각종 양념을 제시하고 미각적인 감각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향아리에 김치를 담은 모습까지 그리고 있어 매우 세밀하면서도 기록적인 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다. 17~18구는 그 해 김장 김치를 처음으로 먹는 설렘과 기쁨, 그리고 감사함까지 그려내고 있다. 이를 ‘盤供美’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끝으로 김치의 맛을 ‘快如嚼梨水生髓’로 표현하여 미각적 표현에 극치를 이루고 있다.

12) 潺水 在郡南十里舊驛亭也 柑樹五六樹蔭覆 里中山盡水回 土地肥沃 宜白菜 其幅之大者圍十八九寸 莖甚白無絲 芽蹙嫩 黃菹爲冬旨其味甚爽 皇城訓練院 白菜國之最名者而無及於此. (윤종균, 『酉堂集』 卷二)

이처럼 씨 뿌리는 과정부터 수확하여 맛보기까지 매우 순차적으로 작시하였다. 이는 작가가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긴 호흡으로 진정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이고 감각적인 표출방식은 향토애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의 다른 시 〈滬江即目〉을 보면, “강둑의 초가집이 제대로 쓸쓸하더니, 채소 팔아 사는 삶 세월이 아득하네(江干茅屋正蕭蕭 賣菜營生歲月遙).”라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시인은 고장의 산물을 섬세하게 묘사하였고, 애잔한 농부의 일상 삶과 공간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¹³⁾ 지금까지 강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을 읊은 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접했다면, 다음 시에서는 시인으로서 강변에 살면서 누렸던 문화 그리고 그 풍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屬破巖阿起一亭	바위 언덕은 깎아서 한 정자를 세웠으니
危梯百尺俯虛汀	높은 사다리 백 척에 빈 물가를 굽어보네.
帆回蟾浦依依見	섬진강 포구에 돛대가 돌아오는 것이 아련히 보이고
鍾落鰲山歷歷聽	오산의 종소리 역역이 들리네.
霽祭壇空秋草碧	우제 지내는 단은 비었고 가을 풀은 푸르고
沙圖村遠暮烟靑	사도촌 ¹⁴⁾ 은 먼데 저녁연기 푸르네.
名區轉覺非吾土	좋은 지역이 나의 토지가 아님이 느껴지니
獨倚西風淚欲零	홀로 서풍에 서서 눈물 흘리고자 하네.

權鳳洙, 〈龍湖亭〉(『芝村遺稿』)

13) 이상과 같이 섬진강의 향토성을 담은 윤종균의 작품으로는 〈蟾津江〉, 〈文江明沙〉, 〈筏村墨柿〉 등이 더 있다.

14) ‘沙圖’라는 지명에 관계된 이야기 두 가지가 전해진다. 신라 덕흥왕 때 도선국사가 현강왕의 부름으로 궁중에 들어가 법문설을 하였는데 뒷날 그가 돌아올 때 하동을 경유하여 섬진강 연안을 거슬러 오는데 이인이 나타나서 山川逆順의 이치를 모래에 그려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연기조사가 지리산에 들어가 연곡사 계곡에 화엄사를 세우게 된 내력으로 어린 아이가 모래에 화엄사 위치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치를 깨닫고 화엄사 터를 잡았다는 내력이 있다. 그래서 이 모래 그림을 ‘沙圖’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례군지편찬위원회, 『구례군지』 중, 2005, 608쪽 참조.

이 시는 권봉수(1872~1940)의 작품이다. 자는 景韶, 호는 芝村이다. 권봉수는 매천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스승의 유교 간행과 유지 만드는 것에 힘쓴 인물이다. 수련에서 용호정¹⁵⁾ 정자가 절경에 위치하였음을 그리고 있다. 백 척의 바위를 깎은 언덕에 자리 잡은 정자는 마치 물가에 허리를 구부린 듯 서 있다. 실제로 용호정은 섬진강가 용두마을 뒷산 언덕에 위치하여 흐르는 강물을 조망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우국에 대한 정이나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술회를 읊은 시인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문학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호남의 도처에 건축된 누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정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면서 서로 시를 수창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⁶⁾ 이곳 용호정에서도 활발한 음영활동으로 통해 國恥에 대한 한을 달래며 선현의 유지를 추모하기도 하였다.¹⁷⁾

함련에서는 용호정에서 관망할 수 있는 섬진강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섬진강의 배, 오산의 종소리를 대비시켜 생동감 있는 풍정으로 고조시키고

15) 일찍이 왕수환 이라는 분이 있어서 고을에 詩를 잘하는 분들과 더불어 龍臺 위에서 契를 닦았는데 이 용대는 옛날 기우제를 모신 零壇이다. 늦봄 3월 첫 巳日과 늦가을 9월 중앙 일이면 해마다 연례행사로 모임을 가진데 비바람과 따가운 햇살을 피할 건물이 없었다. 시구를 모두 읊고 술기운이 도도하면 서로 큰소리로 웃으며 부르기도 하여 아주 옛날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와 같은 모임이 십여 년간 계속되었다.……이곳은 옛날부터 龍臺라고 일컬었으니 그것을 인연하여 이름을 龍臺亭이라고 한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지 龍湖亭이라 하였으니 비록 湖라는 글자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역시 溶字의 뜻을 따른 것인가 싶다(嘗有王粹煥與郡中能詩者修契於龍臺上龍臺舊時零壇也暮春之上巳季秋之重陽日爲其雅集之年例而雨暘無蔽草樹焉依詩龍酒酣相大笑呼巢皇上人如是十有餘年至……此古稱 龍臺 則宜因名 龍臺亭 不之然而必曰 龍湖亭 雖不得湖之字 義亦從俗也。) 姜昶秀, 〈龍湖亭記〉, 『求禮樓亭集』, 구례문화원, 1998, 46쪽.

16) 권순열, 『늘제 박상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학회, 2008, 19쪽.

17) 이에 대해서는 황수정의 『유당 윤종균의 삶과 시 연구』(『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학회, 2008, 364쪽)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정을 담은 작품으로 黃瑗의 〈龍湖亭板上韻〉(『江湖旅人稿』)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용호정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遺民으로서의 한을 그려냈다.

있다. 돌배가 ‘依依見’하고 종소리가 ‘歷歷聽’이라 하여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심상을 아우르고 있다. 돌의 표상성과 종소리의 울림성은 시의 외연과 내포에 무게를 더한다. 즉 뜻은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의 표출로 이상과 희망의 상징성을 갖는다. 그에 반해 종소리의 울림은 은근한 여운을 통해 영원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용호정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경물을 통해 시인은 은연중에 민족의 이상과 영원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련에서는 용호정 주변의 풍광을 그리고 있다. 이는 또한 용호정의 역사를 가늠하고, 당시의 모습을 재구할 수 있게 한다. 용호정은 본래 기우제를 모시던 우단이었다. 이후 한시인들의 시회장으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용호정의 모습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시대의 한을 읽을 수 있다.

미련에서 시회의 장소로, 회고의 공간으로,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구레민, 구레시인들의 공간이었던 곳이 남의 땅이 되었다는 상실감을 드러낸 것이다.¹⁸⁾ 따라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정자의 멋스러움도 애잔한 슬픔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향토애에 대한 애착인 동시에 시인의 힘으로 미칠 수 없는 한계를 표출한 것이다. 이처럼 향토색 짙은 섬진강의 풍모와 역사적 아픔이 서린 생활공간으로써의 일면을 읽을 수 있었다.

3. 신화적 상상력의 힘

신화의 내용은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원인담으로 신성시되고 있는 이

야기이다. 그리하여 신화란 민족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담겨 있는 것이다.¹⁹⁾ 신화는 처음엔 신들과 인간을 구별 짓는 일을 하고 다음엔 인간을 신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관계나 매개자에 그 관심을 쏟는다.²⁰⁾ 또한 신화는 문학 속에서 특정한 공간을 통해 독특한 문화의 형성과 그 저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공간은 객관적이고 표면적이면서 내재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시 속에서 다양한 함의와 내포를 간직한다. 본장에서 특정한 장소가 간직한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독창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적 표현이 간직한 의미를 재해석하여 독특한 발상의 저력을 짚어 보고자 한다.

지리산 유적과 관련된 전설·설화로는 白母堂·帝釋堂·龍遊潭 등의 聖母祠, 雙溪石門의 石刻, 眞鑑禪師碑文을 남긴 崔致遠, 玉寶高가 거문고를 탄 七佛寺 등이 전해지고²¹⁾ 있다. 본장에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중에서 자연위력이나 기원 내력 등을 중심으로 한 신격화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상상력과 구전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天冠仙人太狡獪	천관 선인이 너무도 교활하여
手裂白雲擲天外	손으로 흰구름을 찢어서 하늘 밖에 내던지네.
石骨墮地旋化鷄	돌뼈가 땅에 떨어져 닭으로 변하였고
銅距鐵嘴爬山背	구리쇠 발톱과 쇠의 부리가 산등을 활퀴었네.
五峯飛舞直奔江	오봉이 날고 춤춰 곧바로 강으로 달려가다가
猝遇方壺未肯降	갑자기 방호산을 만나 즐겨 항복하지 않네.
兩山將鬪天動柱	두 산이 장차 싸우려 함에 하늘이 기둥을 움직였고
江神勸解江干住	강 귀신이 화해를 권하여 강가에 머물렀네.

18) 이처럼 섬진강의 생활공간으로써 면모와 풍정을 드러낸 시들이 더 있는데, 황현의 〈沿蟾江東下河東〉, 〈正月六日 訪趙小雅往同福 冒雪溯鵝子江〉, 〈踰杜居嶺 溯鵝江賦六言七首〉 등이 있다. 또한 왕사찬의 시로는 〈重過鴨綠村〉, 〈與柳二山 遊龍臺〉, 〈五峯樓小酌〉 등을 들 수 있다.

19)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0, 16쪽.

20)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94쪽 재인용.

21) 이에 대해서는 김남기의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한국한시학회 제9회 연구발표대회, 1999, 82쪽)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巨靈大叫氣蟠胸
 立成髑髏萬萬古
 世人強名爲石壁
 側身愁望鼪鼯度
 霧雨渲染青是苔
 日星閃爍光無土
 忽驚江心金碧堆
 天中突兀神仙臺
 神蓼歲久頗作怪
 胡僧醉舞能千回
 石上琮琤誰復聽
 金井一勺浮銀盃
 來者莫謾尋寶氣
 且須先濯胸中埃
 我聞空洲月明夜
 津船無人自往來
 不是永郎應玉寶
 授我母秘松風操

큰 신령이 크게 소리 지르니 기가 가슴에 서리고
 서서 촉루가 되어 있기를, 그대로 서 있네.
 세상이 억지로 이름 지어 석벽이라 하니
 몸을 기울이고 수심하여 바라보니 다람쥐가 지나가네.
 안개비가 물들었으니 푸른 것은 이끼요
 해와 별이 반짝이고 빛나고 흙이 없네.
 홀연 강 속에 금 푸른 언덕에 놀랐으니
 하늘 가운데 신선대가 우뚝 서있네.
 신기로운 인삼, 해가 오래되어 자못 괴이한 것이 되었고
 호구 땅에 취하여 스님이 춤을 천번이나 하네.
 돌 위에 쟁쟁이 울리는 소리를 누가 다시 들었는가
 금 우물에 한잔 물이 은잔에 뜨네.
 여기 찾아온 사람은 부질없이 보배 기운 찾으려 말라
 우선 먼저 가슴 속 먼지를 씻으라.
 내가 들으니 빈 섬 달 밝은 밤에
 나룻배가 사람도 없이 스스로 왕래한다고 하네.
 이것이 영랑 아니면 응당 옥보고이려니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송풍의 곡조를 숨기지 말라.

黃玑, 〈五峯石壁〉(『황현전집』 상)

이 시는 매천 황현(1855~1910)의 작품이다. 구례 문척면에 위치한 오봉산의 석벽을 노래한 것이다. 석벽의 모습을 신화적 발상을 통해 신이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발상으로 창강 김택영으로부터 ‘奇警淸雄하여 득의의 역작’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오봉산의 내력과 석벽의 모습, 그리고 그 석벽을 대하는 자세를 읊고 있다. 먼저 산이 생기게 된 내력을 형상화하였는데 이 지역 산의 관계를 표출한 것이다. 선인을 등장시켜 백운산 한쪽을 찢어내서 던지니 또 하나의 산을 형성하였다. 그 산은 구례의 계족산이 되고 그 산의 발톱이 할퀴어 만들어진 산이 오봉산이라는 것이다. 이는 광양의 백운산과 구례의 계족산, 그리고 지리산과 오봉산의 모습을 통한 문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의 모양과

위치 등을 보고 신화적 영감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산을 신격화하여 관계 형성을 그린 것으로 산 형성의 필연성으로 부각시켰다. 여기에 초점을 오봉산에 집중하여 섬진강가에 오봉산이 위치하게 된 것을 지리산과의 대결 구도로 보았다. 이에 중간 조력자인 江神에 의한 화해로 국면을 해결시켰다. 이로써 긴장과 반목, 그리고 화해의 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巨靈大叫’라 하여 그 기상이 장대했음을 그리고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장구히 이어져 온 역사의 목소리였다.

산하의 장엄함은 때때로 그 산하에 뒤지지 않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 강한 의지를 길러내기도²²⁾ 한다. 따라서 ‘立成髑髏萬萬古’라 하여 변함없이 지켜온 지속성의 우직함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석벽으로 이름한 곳이 강하고 차가움이 가득한 듯하지만, ‘鼪鼯度’라고 하여 생명력이 함께 함을 그렸다. 이후에는 오봉석벽에 위치한 신선대의 우뚝한 모습과 영험한 산삼의 신이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오봉산 산신의 존재를 현실화시켜 신성성뿐만 아니라 엄중함까지 그려내고 있다. 이는 ‘且須先濯胸中埃’라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계와 긴장감을 제시하고 있다. ‘金井一勺浮銀盃’에 이어서 ‘津船無人自往來’라고 한 것은, 다시한번 신의 존재를 환기시킨 것이다. 이는 신라 신선 영랑의 힘과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시인 자신까지 선적 삶을 동경하여 함께 할 것을 그리고 있다. 이로써 오봉산의 신격화는 곧 구례인의 성정으로 이입되고, 그것은 역사성과 친근감, 그리고 장대한 힘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섬진강 속에 흐르는 신이성은 다음 시에서도 구례를 지탱하는 자긍심의 한축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河相放生處 하연 재상이 방생한 곳에
 龍潛尚有靈 용이 숨었던 곳에 신령함이 있네.
 年深雲寂寂 해가 오래되어도 구름만 고요하고

22) 심경호, 『한시의 세계』, 문학동네, 2007, 40쪽.

天朗水冥冥 하늘은 밝은데 물은 어둡하네.

落日烟光紫 지는 날에 연기 빛은 자색이고

陰風石氣青 어둡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돌기운이 푸르네.

驚雷鳴絕壑 놀라운 우렛소리는 끊어진 골짜기에서 울리니

立馬幾回聽 말을 세워 놓고 몇 번이나 들었던가.

윤중균, <臨龍秋 在山洞> (『酉堂集』 卷二)

龍秋는 산동면 시상리 雲興亭 앞의 용소를 가리킨다. 그곳에는 '敬齋 河相公 石厓詩 移刻碑와 敬齋碑閣'이 있다. 경재 하상공은 조선 전기의 문신 河演(1376~1453)이다. 진주 하씨로 부사 自宗의 아들이며 자는 淵亮이고 호가 敬齋이다.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전해진다. “하감사가 산동원에서 자는데 꿈에 노옹이 찾아와서, 내 손자 다섯이 그대에게 먹이려고 잡혔소. 그대는 죽이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시를 주었다. 그 시에는 ‘아홉 번 용문산에 오르고 세 번 대해의 물을 마셨으나, 용이 되는 때에 이르지 못했으니 浪孺子에게 命付하리오(九登龍門山 三飲大海水 未及成龍時 命付浪孺子).’라고 하였다. 공이 이튿날 아침에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 용소에서 5마리 잉어를 잡아 아침밥 찬으로 장만할 계획이라 하였다. 감사는 기이하게 여기고 물에 넣어 주라고 하였다.²³⁾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화 된 위의 시는 용의 잔존을 인식하며 신령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23) 이후에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양분된다. 하나는 5마리의 잉어가 연못 곳곳에 나타나다가 사라지길 반복하였는데, 그 모습이 흰 머리, 흰 수염, 검은 뺨 등이어서 한참을 뚫어지게 보는데 혼연히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잉어를 방생한 후 노인이 꿈에 나타나서 感謝의 인사를 하자, 기이하게 생각한 감사는 그 모습 [용]을 한번 보기 원했다고 한다. 그러자 자신의 모습이 추하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갚기 위해 보일 테니, 놀라지 말라는 당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는 그 위용과 험한 모습에 크게 놀라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례군편찬위원회, 『求禮郡誌』 中, 2005, 607쪽 참조.

구례문화원, 『求禮金石文化』 上, 2001, 150쪽.

역사를 두고 이어져 온 내재된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잉어를 방생한 곳에 용으로 화한 신령한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광막한 자연이 주는 정적인 미감과 내부에 담긴 역사의 흐름을 읽고 표출한 것이다. 이로써 ‘雲’과 ‘水’, 그리고 첩자로써 ‘寂寂’과 ‘冥冥’의 對를 통해 역사의 지속성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그 커다란 힘을 발휘해줄 것을 염원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섬진강이라는 공간속에 흐르는 잠재된 소망을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驚雷鳴絕壑’이라고 하여 실존하는 힘의 원천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장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력을 발휘하며 이어온 민족의 힘일 것이다. 구전성을 갖춘 이러한 낭만적 상상은 구례사람들의 자긍심(힘)의 저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성성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한 공간에 상주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空臺迢遞亂雲間

빈 누대 어지러운 구름 사이에 아스라하니

曠野東南境界寬

빈 들판 동남에 경계가 넓네.

危勢逼江樓鶴叫

위태로운 형세가 강에 가까움에 누각에 수리가 울고

神光徹座老龍盤

신기로운 빛이 자리에까지 통하니 늙은 용이 서려 있네.

朱顏綠鬢暮朝改

붉은 얼굴과 푸른 귀밑은 저녁 아침으로 바뀌고

落日斷霞今古寒

지는 날 끊어진 노을은 이제나 옛날이나 차갑네.

暫送故人如遠別

잠시 친구를 보내는데 먼 이별한 것 같으니

臨風悽絕獨憑欄

바람에 임하여 쓸쓸히 홀로 난간에 기대어 있네.

王師瓚, <龍臺別梅泉> (『開城家稿』)

이 시는 왕사찬(1846~1912)의 작품이다. 호는 小川이고 자는 贊之이다. 용대는 섬진강과 서시내²⁴⁾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하루로 5리쯤 떨어진 곳으로 절벽이 강물에 잠기듯이 굽어보고 있다. 마치 용머리 같다하여 ‘龍頭’라 불리는데 이곳에 세운 정자를 용대 또는 용호정이라 한다. 여기서 많

24) 서시내에 대해서는 황수정, 『천사 왕석보 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문교육학회, 2008)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참조할 수 있다.

은 시인묵객들의 시연²⁵⁾이 베풀어졌으며, 만남과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 왕사찬은 매천과의 이별의 아쉬움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는 ‘鵲’과 ‘龍’에 주목하고자 한다. 용호정이 위치한 전경을 ‘鵲’과 ‘龍’의 대비를 통해 강한 근성과 영험함이 서린 곳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곧 잠재된 힘과 기상을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朱顏綠鬢暮朝改’라 하여 변함없는 생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섬진강을 지키는 신이 영원불변의 힘으로 상존하는 공간인 것이다. 즉 신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사에는 소망과 기대가 함께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믿음의 공간이고 의지가 되는 장소에서의 이별은 다시 만날 것이 전제되고, 극복의 힘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이성은 구례사람들에게 오늘을 사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내일을 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4. 사계절 풍경의 여유

산하가 이루는 풍경은 인간 주체의 삶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한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민족사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산수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안주의 대상이 되었다.²⁶⁾ 이로써 자연이 주는 안정과 여유는 문학에 있어서 미적 소재로 형상화되어 서정성을 갖추게 한다. 옛 선인들은 자연을 심신수양의 도구

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연이 주는 서정성은 인간에게 감성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정신적 삶을 살찌우게 한다는 데 의미도 클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산수를 즐기면서 보존하는 방법일 것이다. 본장에서는 섬진강의 계절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수, 특히 강변의 미적 소재와 어울린 인간의 정감과 멋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옛 선인들의 미적 감각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변의 계절 변화에 대한 섬세한 형상화를 밝히고, 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千家榆柳合新烟
佳節驚心客路邊
微有天風驢更快
一經春雨鳥增妍
桃花多事圍山店
蝴蝶隨人上野船
滿眼清江三十里
黃魚如錦不論錢

천가에 버드나무 새로운 연기가 차가우니
좋은 명절에 객지 가에서 마음에 놀라지네.
약간의 하늬바람에 나귀가 더욱 상쾌하고
한번 봄비를 지내고 나니 새는 더욱 고와졌네.
복숭아꽃은 부질없이 산점을 둘러고
나비는 사람을 따라 들 배에 오르네.
눈에 가득한 맑은 강 삼 십 리에
비단같은 황어값은 따지지 말게.

황현, 〈辛卯春 鴨江途中 得一聯曰 ‘微有天風驢更快’
寒食復泝江西上 偶爾思及足成一篇〉(『황현전집』 상)

이 시는 임진년인 1892년 매천 황현의 나이 38세에 지은 것이다. 매천은 일년전(신묘년)인 1891년에 압강을 지나면서 ‘微有天風驢更快’라는 구절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해 한식날 강 서쪽 위로 가면서 이 시를 완성한 것이다. 압강은 곡성군 오곡면에 해당하는 섬진강 지류로 깨끗한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요즘도 강태공들 사이에 훌륭한 낚시터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매천은 1890년 구례 간전에 구안실을 짓고 만수동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곳은 구례에서도 깊은 산중

25) 구례군 토듬면龍頭리 용두부락, 섬진강 기슭에 있다. 단층의 골기와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건물이다. 1916년에 이병호, 강창수 등의 발의에 의해 오두손, 윤행덕, 김윤승, 마서하, 김학권, 이근호, 고희문 등을 비롯하여 군내의 72가 인사들이 출금력하여 당시 험하게 된 鼓角樓를 사들여 이를 龍臺上으로 옮겨 군내의 詩會所로 건립한 것이다. ‘용호정시계’라는 시계를 조직하여 詩와 禮를 익히는 모임을 이루었다.

26) 심경호,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67~68쪽 참조. 이종묵, 산수와 생태와 문학, 『한국한문학연구』 제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199쪽 참조.

에 속하는 곳으로 매천의 삶을 더욱 올곧게 하였다. 주로 詩作과 독서를 비롯해 매천야록을 작성하였던 곳이었다. 여기서 매천은 부친상(1892년)과 모친상(1893년)을 당하였다. 이 시는 그런 큰일을 치루기 전, 배를 타고 곡성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회를 읊은 것이다. 시인의 봄에 대한 설렘과 주변 정경의 아름다운 모습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강가 주변 마을에서 느껴지는 새봄의 정경을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있다. 미풍과 봄비를 통해 전하는 봄의 일상은 동적인 미감과 싱그러운 색깔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속에 촉감과 시각적인 미감이 부각되었다. 경련에서는 특히 이러한 미감이 확대되어 봄 계절의 특징이 화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桃花’와 ‘蝴蝶’이라는 봄의 대표적인 상징물을 통해 색채적인 미감과 더불어 생동감을 주고 있다. 경련의 하구인 ‘蝴蝶隨人上野船’은 마치 林億齡의 〈示子芳〉을 연상하게 한다. 즉 ‘돌아올 때는 소매 가득 맑은 향기 남아, 무수한 산 벌들이 멀리까지 사람을 따라오네(歸來滿袖清香在 無數山峰遠趁人).’라고 하는 미감과 유사하다. 봄 계절에 느낄 수 있는 강가 주변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하며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는 자연과 시인이 일체를 이루는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微有天風驢更快’라는 구절과 ‘蝴蝶隨人上野船’이라고 하여 정경일치의 극대화가 잘 이루어진 부분이다. 여기에 섬진강만의 특징인 맑은 강물을 부각시켜 ‘淸江三十里’라 하였고, 그 속에서 노니는 황어 값을 不論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시인의 시야를 확장하여 강 전체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또한 물속의 비단 같은 황어를 형상화함으로써 충만한 만족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봄의 서정을 그린 섬진강의 모습이 잘 구현되어 드러났다.

散步庚天晚 산보하며 경천에 늦었으니
俯臨江水長 굽어 임하니 강물은 길게 흘러가네.
眼隨雙鷺遠 눈은 두 해오라기를 따라 멀리가고
心與一蟬涼 마음은 한 매미와 더불어 시원하네.

題石荷連嶼 돌에 글을 쓰니 연꽃은 작은 섬에 연했고
彈棋竹映床 장기를 두는데 대는 자리에 비치네.
遙憐當路客 멀리 생각건대 요직에 있는 사람이
冠冕帶爐香 먼류관을 쓰고 화로 향기를 띠고 앉았네.
윤종균, 〈龍湖納涼〉(『西堂集』卷二)

여름날 옹호에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산보하며 달이 뜬 밤에 옹호를 찾아가고 있다. 옹호에는 강물로 굽어 있는 바위가 있고 그곳에서 길게 이어진 강물을 바라본다. 한가로운 저녁 날 더위를 피해 강가를 찾은 시인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두 마리의 해오라기가 길게 날고 있어 시인의 눈은 어느덧 새들을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매미소리가 더하니 여름날의 정취가 잘 드러나 있다. 강가에서 임하는 여름날의 정경을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으로 극대화하고 있다. 눈은 멀리 나는 새를 보면서 아련한 그리움이 표출되는 듯하다. 마음은 매미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편안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유당은 이곳에서 지난날 자신이 잠시 벼슬의 길에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유당의 삶에서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겸산 백낙윤이다. 유당은 1895년(35세)에 겸산이 순천 부사로 부임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듬해에 겸산이 남원 관찰사로 승진했는데, 유당을 남원主事로 천거하였으나 여러 번 사양하다가 “내 이제 어머니가 늙고 집안이 가난하니 녹을 받는 벼슬살이를 어찌 꺼리랴(吾今親老家貧祿仕何妨). 27)”고 하며 힘써 그를 따랐다. 28)고 한다. 유당은 이렇게 벼슬생활을 택했던 것으로 노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노래한 시가 있기도 하다. 이처럼 휴식의

27) 尹承浩, 「叙傳」, 『西堂集』.

28) 황수정, 「유당 윤종균의 삶과 시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8, 353~354쪽 참조.

서 함축적인 의미를 형성하였다. 수련과 함련의 서정이 시인의 절망과 희망으로 대변된다면, 경련과 미련은 시인의 고적감과 의지의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古寺’와 ‘孤舟’의 對를 통해 상투적인 쓸쓸함을 그린 듯하다. 그러나 절과 배를 각각 ‘層巖外’와 ‘廢驛陰’이라는 공간에 설정하여 심정적인 거리감으로 노출하였다. 이로써 시인의 고적감이 문학적 공간에 투영된 것이고, 이로써 시인의 서정이 한층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²⁹⁾ 여기에 곧바로 시인의 정서는 줌주림에도 죽지 못하는 갈매기에 이입된다. 그것은 한 평생 시인으로서 삶을 이어온 근원적인 고민이며 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힘겹게 견뎌온 지난 세월의 의미를 반추하는 여유를 보여준다. 이처럼 사계절의 풍정을 노래하며 시인으로서의 충만과 여유를 드러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섬진강은 풍류의 공간으로 멋과 여음을 간직한 채 흐를 수 있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 논문은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정을 고찰한 것이다. 지역의 특정한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특수성을 유추하여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밝히 고자 한 것이다. 선조들의 문화구현 양상이었던 한시를 통해 섬진강의 면면들을 살피고, 그 풍정을 읽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잔한 삶의 흔적이 투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체험을 통한 사실적 미감을 드러낸 것이다. 즉 한시를 통해 進貢의 어려움과 농사형태의 특수성, 그리고 역사적 암울감을 그려냈다. 이로써 당시 섬진강변의 독특한

생활상과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신화적 발상을 통한 상상력의 힘이 투영되었다. 시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은 기이한 미감을 발현시켰다. 이는 곧 신비한 낭만성으로 드러났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산과 누정의 특수성을 통해 시인의 기발한 발상은 공간의 특수화를 이루었다. 영랑과 옥보고의 신이성, 잠룡의 능력 등을 기대하였던 당시 구례 시인들은 시 속에 민족의 염원을 담고자 한 것이다.

셋째, 사계절의 여유로운 충만감이 투영되었다. 섬진강이 표현된 한시의 계절적 미감을 살펴보았다.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섬진강은 시인들의 감성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서정성을 알 수 있었다. 봄의 미감은 싱그러움으로 강변의 색깔과 물고기의 생동감으로 충만감을 그려냈다. 여름은 강변정자의 경치를 완상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로 인해 여유로워진 마음은 지난날을 회상하게 하였다. 가을은 계절적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시인의 뛰어난 시적 형상화 능력을 포출하였다. 겨울의 미감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시인의 정감을 이입하였다.

지금까지 섬진강을 그려낸 한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섬진강은 생활 공간, 믿음의 공간, 그리고 풍류의 공간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한시에 표현된 향토성 짙은 사실적 미감과 낭만적인 기이한 미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계절적 미감을 그려낸 서정성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이는 애잔한 삶의 흔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힘을 기대했으며, 사계절의 미감을 여유롭게 즐겼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섬진강은 옛 구례 시인들에게 삶과 자긍심의 근원이었으며, 그리고 풍류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풍정은 앞으로도 후세 사람들에게 계승·발전되어 섬진강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9) 그밖에 계절적 아름다움과 만족감을 노래한 시로는 왕사찬의 〈文江道中〉과 〈鴨綠江上下形勝有餘〉, 황현의 〈午渡鴨綠津〉, 〈鶉江途中 六言四首〉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 항, 『睡隱集』
권봉수, 『芝村遺稿』
윤중균, 『酉堂集』
왕수환 편, 『開城家稿』
황 현, 『黃玆全集』
황 원, 『江湖旅人詩稿』
구례군지편찬위원회, 『求禮郡誌』
구례문화원, 『求禮樓亭集』
_____, 『求禮金石文化』
- 권순열, 「눌재 박상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김남기, 「지리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그 문학」,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김정환, 「매천시파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김찬호, 『문화의 발견』, 문학과지성사, 2007.
김철범, 「낙동강 하구와 서경 한시」, 『한국한문학연구』 제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김혜숙, 「智異山의 漢詩的 反響」,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박수천, 「智異山의 寺刹 題詠 漢詩」,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이종묵, 「山水와 生態와 文學」, 『한국한문학연구』 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임형택, 「한문학 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방향」, 『한국한문학연구』 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심경호,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 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8집, 한국한문학회, 1995.
이선영 옮김,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2001.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최석기, 「浮査 成汝信의 智異山遊覽과 仙趣傾向」, 『한국한시연구』 7, 한국한시학회, 1999.

-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민음사, 1980.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_____, 「유당 윤중균의 삶과 시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_____, 「천사 왕석보 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A Study on Elegant Appearance of Sumjin River Reflected in Chinese Poetry

Hwang, Su-jeong

This study examines refined appearance of Sumjin River reflected in Chinese poetry. It is to speculate Sumjin River and understand refined appearance through Chinese poetry.

First, it is found that traces of sad life are reflected in Chinese poetry. It has true aesthetical meaning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distinctive living styles at and historical facts around Sumjin River.

Second, imaginative power based on mythological ideas was reflected in it. The river as a divine space originated unique aestheticism through literary imagination of poets, which was represented in mysterious romanticism. At that time, poets in Gurye intended to represent aspirations of the people in poetry.

Third, deeply satisfying feelings of four seasons in the river as a place of elegance were reflected in the poetry. The Sumjin River which is famous for its clear and fresh water could encourage poets to have more abundant emotion and lyricism.

Key words: Chinese poetry, Sumjin River, traces of life, power of imagination, deeply satisfying feelings